

환영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 개최를 환영하며

지난해 8월 여름의 막바지에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공유’ 선언을 하신 후 오늘 이렇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를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식공유(오픈액세스)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으로서, 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부다페스트 선언이 있었던 200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 체제 구축, 지원 정책 마련 등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학술지가 상업출판사에 의해 독·과점되면서 학술지 구독료 상승으로 인해 연구활동 위축 등 학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학회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지식공유연대 여러분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함께 5년간 진행하던 도서관 R&D 연구개발사업을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이관받아 ‘오픈액세스코리아(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학술정보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식공유연대 측에서 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의 과월호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아카이브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리포지터리를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식공유 문화의 확산은 물론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기능이 동반 성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픈액세스 확산 지원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